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27.(일) 15:00	배포 일시	2022. 11. 27.(일)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	권준 (044-203-5223)

2차관, 화물연대 파업 관련 판교저유소 현장점검

- 국내 석유수급 차질 없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당부 -
- 「정유업계 비상상황반」 구성·운영, 입출하 현황 등 모니터링 강화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**은 11.27.(일)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파업 관련 **휘발유,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**하였다.

* 대한송유관공사 : 송유관을 통한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해 '90년 1월 설립

○ **판교저유소**는 **'97년 6월 준공**되어, 저장탱크 40기, 총 2,179천 배럴의 저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, **수도권 전체 소비량의 약 60%를 담당***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의 핵심 거점시설이다.

* 판교저유소 일평균 출하량은 약 2,6000㎘, 수도권 소비량(약 44,000㎘)의 약 60% 차지

○ 금번 현장점검에서는 판교저유소 등 **전국 저유소 파업현황 및 석유제품 입·출하 현황을 점검**하는 한편, **현장 임·직원을 격려**하고,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【 판교저유소 현장점검 개요 】

- 일시 / 장소 : '22. 11. 27(일) 15:00~15:30 / 판교저유소
- 참석자 : 박일준 제2차관, 석유산업과장, 분당경찰서 정보과장
  대한송유관공사 안전·운영본부장, 남부·중부운영실장, 기업문화실장 등
- 주요내용 : 판교저유소 파업현황 및 석유제품 입출하현황 점검,
  현장 임·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

□ 대한송유관공사는 이날 현장 브리핑을 통해, 11.24(목) 화물연대 파업 이후 출하 물량이 평시 대비 감소하였으나,

○ 이는 탱크로리 운행 제한 외에도 파업에 대비하여 **저유소 사전 출하량이 대폭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**한 것으로, **전국 11개 저유소의 수송·저장 등은 정상 운영 중**인 상황임을 설명하였으며,

○ **내부 비상대응 조직을 운영 중**으로, 비상시 신속하게 출하될 수 있도록 산업부·경찰청 및 정유업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□ **정부**도 11.24(목) 화물연대 파업 이후 즉각적으로 「**정유업계 비상상황반***(반장 : 자원산업정책국장)」을 구성·운영 중으로,

* (구성) 산업부, 정유4사, 대한석유협회, 한국주유소협회, 한국석유유통협회, 대한송유관공사, 한국석유공사, 한국석유관리원 등(반장 : 자원국장)

○ **탱크로리 파업참여 현황** 및 정유공장·저유소 등 **주요거점별 입·출하 현황**, **주유소 재고** 등에 대해 **면밀히 모니터링**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수급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□ **박일준 제2차관**은 “파업 이전부터 정유·주유업계의 사전재고 확충 노력 등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추가공급 없이도 **약 1~2주 간 지속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 중**에 있으나”

○ “**파업이 장기화될 경우**에는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부터 **점차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**할 수 있는 만큼, **업계와 함께 파업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**하고, **재고가 부족한 주유소는 탱크로리를 우선배차** 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